

문화수도 광주, 사립미술관 유치 필요하다

광발연 주장...매년 20만명 이상 관람 비엔날레·문화전당 연계 시너지 효과

광주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유명 사립미술관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명 사립미술관 소장품은 예술성과 가격 측면에서 배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만큼 사립미술관이 광주에 유치될 경우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부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FOCUS광주' 16호에서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위한 유명 사립미술관 유치건립방안'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가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아트광주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명사립미술관이 광주에 건립된다면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광주가 현재 건립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고 비엔날레 종합예술공원 등 그랜드 인프라가 갖춰질 경우 광주가 '문화예술의 현상이자 세계로 향하는 관문'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점에서 타지역에 비해 탁월한 '장소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유명 사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미술관 지장건립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대

기업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광주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을 비롯해 28개 기업체에서 31개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삼성의 '리움'과 대우의 '아트선재'를 비롯한 일부 갤러리에서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유명 사립미술관 유치 방안과 관련,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 측이 미술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의 배후지역인 동명동과 장동, 공동 일대가 바람직하며, 지자체가 공유지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립 미술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해소가 필요하며, 광주에 사립미술관을 건립한 기업체들이 자부심과 보람

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미술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사립미술관의 미술품을 연 1회 정도 전시하는 '준 상설전시'체제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때 필요한 작품 운반비, 보험료, 설치비 등을 별도의 '기부프로그램(메세나)'으로 운영해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독일의 BMW박물관이나 일본 NTT도코모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처럼 사립미술관이 '복합문화 공간'형태로 유치된다면 광주비엔날

레와 연계, 집객력을 높이고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명 사립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수준은 최상급으로 배타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물 자체도 예술품으로 평가받을 만큼 훌륭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유명 사립미술관 유치·건립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세계적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단계"라고 말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부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FOCUS광주' 16호에서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위한 유명 사립미술관 유치건립방안'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가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아트광주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명사립미술관이 광주에 건립된다면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광주가 현재 건립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고 비엔날레 종합예술공원 등 그랜드 인프라가 갖춰질 경우 광주가 '문화예술의 현상이자 세계로 향하는 관문'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점에서 타지역에 비해 탁월한 '장소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유명 사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미술관 지장건립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대



26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서 '삼색 포도 따기 체험행사'가 김정호(43)씨 포도농장에서 열렸다. 체험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아이들이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광주시 내달 2일부터

광주시는 오는 9월2일부터 대형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한다. 지금까지는 폐가전 제품을 배출할 때 최고 1만5000원까지 일정한 처리 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무상 수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수거전담반이 가정을 방문해 직접 수거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지자체와 환경부, 생산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수거·운반·처리하는 한국전자산업협회에 담당한다. 수거대상 대형 폐가전 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크기 1m 이상인 식기세척

기, 공기청정기, 냉온정수기, 오븐데인저 등이다. 다만, 냉각기가 없는 냉장고나 모터가 없는 세탁기 등 원형이 훼손된 제품, 전자파야노, 안마의자 등은 현재와 같이 수수료를 지불한 후 배출해야 한다. 배출 예약신고는 인터넷(www.edtd.co.kr) 또는 전화(1599-0903), 카카오톡(id : weec)으로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상 방문수거 시행으로 대형폐가전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며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폐금속 자원 재활용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시티 뉴스

북구 드림스타트 나눔천사단 오늘 '효 음악회'

광주시 북구 '드림 스타트 나눔 천사단' 소속 아동 45명이 27일 오후 2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효(孝)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선 한국 무용(정다운 외 17명)·플룻 합주곡(김정민 외 12명)·라인 댄스(김현지 외

17명)·그룹 사운드(이도경 외 14명)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북구청 소속 공무원 박용신씨가 특별 출연해 10종의 마술 공연을 펼친다. 지난 2011년 구성된 나눔천사단은 매년 여름방학기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음악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시경관추위 위원 22명 공개 모집

광주시는 오는 9월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광역시경관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인원은 분야별로 건축 3명, 조경·도시·경관·조명·전기·디자인·옥외광고 각 2명, 토목·환경·문화·색채·국악 1명 등 총 22명이다. 공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응모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일부 재

위촉도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6일까지며 응모 서류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나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http://designcity.gwangju.go.kr)에서 내려받아 기타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ppkpp@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선정하고, 9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시·정보산업진흥원 SI개발 교육생 모집

광주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IT·SW 인재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9월 중 'SI(시스템통합)개발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9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13주 동안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IT 관련

학과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등 관련분야 취업 희망자로,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당-교육정보'에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062-610-2451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의 10월은 축제의 달

한껏 땀을 흘려던 무더위가 찾아들면서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10월 초 세계김치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총장축제와 굿모닝! 양림 등 대규모 축제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문화수도'의 명성에 걸맞게 광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국내외를 아우르는 이틀 행사는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월 5일엔 광주 김치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제20회 세계김치문화축제'가 5일간 중의공원에서 펼쳐진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그 첫 번째가 '김치축제 추억찾기'다.

김치문화축제위원회는 포스터와 리플릿, 기념품, 사진, 영상 등 역대 김치

축제를 추억할 수 있는 자료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축제기간 중 체험관 안에서 전시하고, 축제가 끝나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김치콘테스트와 김치아카데미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음식콘테스트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령상과 상금이 걸려있는 김치명인 콘테스트에는 전국의 마니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축제가 배울 수 있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그 첫 번째가 '김치축제 추억찾기'다.

김치문화축제위원회는 포스터와 리플릿, 기념품, 사진, 영상 등 역대 김치

5~9일 세계김치축제
9~13일 총장축제 등
10여개 줄줄이 열려

으로 모집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제10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도 준비되어 있다. 오는 10월 9일부터 5일간 총장로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장축제에서는 전문 연출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리퍼레이드', 총장축제를 기념하는 '브랜드 공연'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힐링'의 3박자가 맛있게 버무려진다. 이번 축제에

서는 그동안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기존의 행렬식 진행방식을 탈피, 6명의 연출·안무·조형 전문가를 섭외해 퍼레이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계림1동은 공사 중 발견된 개미집을 옮겨주자 개미들이 흥년에 쌀을 물고 왔다는 '개미보는 설화', 계림2동은 김덕령 장군의 설화에 담긴 가미한 창작이야기를 만들었다. 1970~80년대 거리모습을 재현하는 '테마의 거리'는 올해 메인테마를 '힐링'으로 정했다. 테마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구에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굿모닝 양림' 축제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

지 양림동 일원에서 펼쳐진다. 음악, 미술, 문화와 접목된 인문학 축제다.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참여형 제작 방식으로 진행되며, '골목길 영화제', '양림동의 화가들' 등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25일 광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울려 퍼질 '남구 오카리나대합주'도 지역민의 기대를 받고 있다. 2만여 명의 연주자들이 모일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플래시몹과 함께 아리랑을 새롭게 편곡한 오카리나 연주곡이 준비되었다. 북구에서는 국화전시회가 준비되어 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북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국화전시회에는 대국·소국·현애 등 50여종의 국화 3만 분이 전시되며, 인형극, 토키어리전시, 작은음악회, 마술 공연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정선 부원장 출연)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교임, 전주고등학교교임]

초혼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p>	<p>女</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6~41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부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女</p> <p>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부녀자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옷 토종 참옷담 / 옷 청동오리 / 옷 삼계탕
한방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담 (오브, 식사소금 포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옷담 062)515-5757(옷칠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